

등록금 심의 위원회 참석자 명단

일 시 : 2012년 4월 12일(목) 16:00

장 소 : 기획실장실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기획실	기획실장	유 현		총학생회	총학생회 부회장	홍양석	
학생 지원처	학생 지원처장	허남윤		총학생회	총학생회 총무부장	이윤하	
학생 지원처	학생 지원과장	구자윤		이화 다이아 몬드	총무이사	김성수	
총학생회	총학생회 회장	김진혁					

등록금 심의 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2년 4월 9일
위원정수 7명	재적위원 7명

(1) 일 시 : 2012년 4월 12일(목) 16:00

(2) 장 소 : 기획실장실

(3) 안건 및 심의 결과

가. 안 건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나. 심의결과 : 법인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 한다.

(4) 회의내용

위원장 : 성원이 되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2년 1월 26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사학연금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승인신청 절차와 과정과 관련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문에 따라 필요한 부분으로써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의 4번 항목을 보시면 2011년도 결산자료 및 2012년도 예산상의 법정부담금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중 사학연금항목이 이번에 개정된 부분의 항목입니다. 2011년도에는 법인으로부터 4백만원의 전입금을 받았었고, 2012년도에는 2천만원을 전입 받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자윤 : 법으로 법인에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은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남윤 : 이번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서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법인의 개선계획을 의결하여 대학에 다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FAQ항목을 찾아보았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등 회의순서를 정해놓은 것은 없으나, 절차상 이사회 회의 전 등록금 심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먼저 개최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2 홍영성

구자윤 : 향후 개선계획이 법인에서 나와 줘야 하는 사항 이라 생각합니다. 개선계획 없이 바로 동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개선계획서가 먼저 의결되어 다시 동의를 구해야 학생들을 설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양석 : 심의사항에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선계획을 가지고 심의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허남윤 : 순서적으로 학교의 입장을 법인에 전달을 하고, 법인에서 다시 동의 요구가 오면 심의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홍양석 :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리 되는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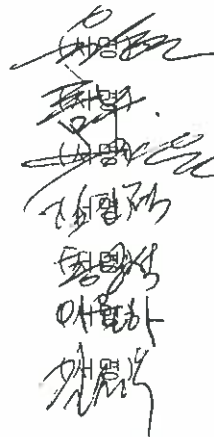
김진혁 : 학생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순수 교육비로 사용 되지 않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인 부담금까지 등록금으로 총당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된다면 학생들의 반발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회의결과는 법정부담금은 법에 따라 법인에서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서명은 3명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동의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위원장 : 유 현
위원 : 허 남 윤
위원 : 구 자 윤
위원 : 김 진 혁
위원 : 홍 양 석
위원 : 이 율 하
위원 : 김 성 수



Handwritten signatures of the committee members, corresponding to the names listed on the left. The signatures are written in black ink and are somewhat stylized.

오산대학교 등록금심의 위원회